

212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79) 천연고무를 짜 넣은 재킷

□ 천연고무를 짜 넣은 재킷

해설)

- 사고품을 관찰하면 극도로 변형되어 있으며 탄성 소재에 팽윤이 있다. 또, 석유계 용제가 탄성 소재 중에 다량으로 잔류하고 있음.
- 이탈리아에서는 폴리우레탄 표기는 Polyurethane(PU)로 표기하고 있으며, Rubber는 천연고무(라텍스)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. 또, 현미경으로 관찰하면, 직경 0.8 mm의 지극히 굵은 탄성 섬유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음.



- 연소시험 결과, 흰 연기(천연 고무는 검은 연기 판정)가 발생되고 독특한 고무 악취가 발생하였음. 폴리우레탄의 연소시험 판정은 연기가 없어 적어도 폴리우레탄 수지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.
- 표시도 Rubbe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천연 고무계의 수지라 판단되었으며, 흰 연기가 난 것은 다량의 석유계 용제를 함유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됨.
- 천연고무는 지극히 친유성이 강하고 석유계 용제를 다량으로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용제를 흡수해서 심하게 변형되어 버린 것이라 판단됨.
- 이 제품의 경우, “드라이클리닝에 의해서 수축·변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 처리 하세요”등의 표시가 있어야 마땅하며, 또 「물세탁 불가」로 되어 있지만 나일론과 천연고무라고 하는 소재의 성질을 고려하면, 이 경우 제조자에 의한 물세탁 가능, 드라이클리닝 불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